

韋旭昇文集 서평

趙東一*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다가 은퇴한 韋旭昇교수의 논지를 모은 《韋旭昇文集》이 北京 中央編譯出版社에서 2000년 9월에 출간된 것은 커다란 경사이다. 학자가 저작집을 정리해 내는 것은 쉽게 이루지 못하는 소망이니 韋교수는 복을 받은 분이다. 전 6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과 거기 수록되어 있는 수준 높은 논지가 평생의 연구가 성과 있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한다. 국내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필독서이고, 한·중 두 나라 문화교류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업적이다.

韋교수가 학문을 할 때에는 주위에 동행이 없어 외로웠지만,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에는 많은 동학이 모였다. 출간을 함께 기뻐하면서 한·중 학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책 서두에서 이 전집을 “朝鮮半島南北兩方的學界摯友”에게 바친다고 했다. 남북의 벗들이 공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의의도 크다. 훌륭한 책은千里가 咫尺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韋교수는 중국에서 학문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 연구를 가장 많이 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중국인들은 어느 때든지 있었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어 저작은 읽지 못해 피상적인 이해를 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아 연구업적을 부지런히 내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韋교수는 그 양쪽의 한계를 일거에 넘어선 대학자이다.

韋교수는 또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가운데 특히 뛰어난 분이다.

* 본과 교수

한국문학 연구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지에도 있지만, 역량이나 업적에서 韋교수와 대등한 위치에 설 만한 학자를 찾기 어렵다. 나는 韋교수와 함께 한 번은 호놀룰루에서, 또 한 번은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학 국제학술회에 참가했다. 그런 자리에서 韋교수는 단연 돋보였다.

호놀룰루에서는 《玉樓夢》에 관한 논문을, 시드니에서는 趙秀三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문학을 전공한다는 서양학자들은 작품에 익숙하지 않아 그런 논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 현대문학 전공자나 외국문학자가 대부분이어서 韋교수의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교모임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학술회의가 韋교수 덕분에 아연 긴장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韋교수의 업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문집 제1권을 이루고 있는 《朝鮮文學史》(1986)이다. 이 책은 외국어로 저술한 한국문학사 가운데 내용이 가장 충실하다. 독일인 에카르트(Andre Eckardt)의 문학사(1968)는 물론, 일본어로 나온 재일동포 卞宰洙의 문학사(1985)보다 훨씬 자세하고 한층 균형 잡힌 서술을 했다. 20세기 문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고전문학사로서는 당당한 내용이다.

남북한에서 내용은 문학사의 기존 업적 가운데 형편상 북한 것을 주로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독자적인 체제와 서술을 갖추었다. 명분보다 실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점보다 사실을 밝히는 데 힘쓴 것이 전 반적인 특징이다. 前言은 짧게 쓰고 결론 같은 것은 두지 않았다. 문학론에 해당하는 서술은 별반 없다. 그 대신에 주요작가와 작품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원문 번역을 많이 넣어 이해를 돕는 데 힘썼다.

한문학을 충실하게 다루려고 한 것이 두드러진 장점이다. 그 점에서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선행작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한문학 작품 가운데 새로 거론한 것들이 적지 않다. 韋교수 자신의 연구를 근거로 삼아 내용을 충실하게 했다. 李奎報, 李齊賢, 權躡, 丁若鏞, 趙秀三 등의 뛰어난 시인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생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李齊賢의 詞를 중국 것과 비교해 고찰한 작업은 특기할 만하다. 조선 후기 한시 가운데 ‘樂府詩’라고 일컬어온 것들을 ‘鄉土詩’라고 해서, 명칭 때문에 생긴 복잡한 논란을 피하고 성격을 분명하게 한 것은 주목하고 평가할 시도이다.

한문학에 관심이 큰 만큼 국문문학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구비문학은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록된 자료만 일부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은 특징이지 결함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문헌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현장에서나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이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서술의 순서나 체계에 관한 사항은 일부 재고가 필요하다. 고려시대 문학을 다룰 때 한시는 선후의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고, 그 다음 순서로 등장시킨 다른 갈래들을 하나씩 통괄해서 설명했다. 李奎報와 李齊賢을 먼저, 金富軾은 그보다 나중에 《三國史記》의 傳記에 관한 대목에서 비로소 등장시켰다. 그 때문에 고려전기에 金富軾이 《三國史記》에서 제시한 세계관과 거리를 두고 고려후기에 새로운 문학이 등장한 것을 알기 어렵게 했다.

조선시대 문학을 전기(15-16세기), 중기(17세기 전후), 후기(18-19세기)로 나눈 것은 고려시대를 하나로 본 것과 다르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학을 고찰한 대목에서 “國語小說《壬辰錄》의出現”을 먼저 다루고, 《洪吉童傳》은 나중에 등장시킨 데도 의문이 있다. 그 때문에 국문소설의 출현을 다루고,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전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

제3권에 수록된 《中國文學在朝鮮》(1990)은 구체적인 연구를 더욱 진전시킨 업적이다. 한중비교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적지 않아 여러 저술이 나왔으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을 모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적은 전례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있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책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널리 읽힌 것이 당연하다.

권말의 후기에서 한국내의 연구성과를 여럿 참고했다고 한 점이 그런 말이 없는 《朝鮮文學史》와 다르다. 그 사이에 사정이 달라졌다. 이따금 주를 달아 선행연구와의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사를 검토하고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서론을 갖추지 않고 본론에 바로 들어갔다. 비교문학 연구에 수많은 쟁점이 있어 연구자를 당황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정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서두에서 중국문학이 한국에 전파되고 수용된 이유를 들면서 朝貢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朝貢관계의 변천을 시대구분의 척도로 삼았다. 그러나 朝貢관계와 문학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占城(참파), 暹羅(삼, 타이), 爪哇(자바) 등도 중국과 朝貢관계를 가지고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횡수를 보면 조선왕조보다 더 많았지만, 중국문학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그 이유는 문명권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문명권 소속은 공동문어 사용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日本이나 越南과 함께 漢文을 공동문어로 하는 문명권을 이루어, 중국에서 산출한 한문고전을 공동의 유산으로 삼았다. 인도에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어 고전을 남·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일제히 숭앙하고 활용한 것과 같다. 한문,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가 네 가지 커다란 공동문어 노릇을 하면서 문명권을 구획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사실에 고려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문학교류를 공동문어 사용 이전의 시대, 공동문어의 시대, 공동문어가 민족어로 대치된 시대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가) 儒學의 경전, (나) 고전 詩文 (다) 고전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詩文, (라) 소설이나 희곡 등의 대중문학(俗文學), (마) 구비문학(民間文學)은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양상이 달랐다. (가)에서 (마)까지가 전래되고 수용된 양상을 시대구분을 더욱 세분화하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와 (나)는 문명권 전체의 공유자산이라고 여겨 외국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北宋 때까지의 시문에는 (나)가 있었던 것과 달리, 南宋 이후의 시문은 어느 것이든 (다)라고 여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월남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元·明·淸 이후의 (라)는 번역이나 번안을 통해 받아들이는 외국문학이었다. (마)의 교류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상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韋叢수가 힘써 한 작업은 중국문학이 전해져 한국문학에서 수용되고, 이용되고, 변형을 이룬 과정과 양상을 형식, 수사, 주제, 수법, 사상, 배경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한문학과 국문문학을 함께 다루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다가, 현대문학에까지 논의가 미쳤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어서

감탄을 자아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하다가 사실 열거에 그쳐 핵심이 불분명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구 차용에 지나지 않는 것들은 버려두고 문학 창작의 기본구상이 연관되어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주제에 관한 대목에서 ‘忠君’, ‘有神論’, ‘戰爭’, ‘愛情’, ‘田園生活’, ‘送別與懷人’, ‘邊塞’, ‘民本主義’, ‘抗拒異民族’, ‘人生如夢’을 들었다. 그 가운데 ‘忠君’이나 ‘田園生活’에 대해서 말하고, ‘邊塞’의 기개를 노래하며, ‘人生如夢’을 이야기할 때에 중국의 전례를 드는 일이 흔히 있었으나, 발상 자체가 중국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다. ‘有神論’은 재래의 무속에 이미 있었다. ‘戰爭’, ‘愛情’, ‘送別與懷人’, ‘民本主義’, ‘抗拒異民族’ 같은 것들은 독서체험보다 생활체험이 선행해서 얻은 주제이다. 표현 문구의 유사성으로 발상의 특징을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비교문학에는 영향연구도 있고 대비연구도 있다. 대비연구를 중국에서 ‘平行比較’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이다. 한국문학이 중국문학과 유사한 것은 모두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미리 말할 수 없다. 부분 차용 수준을 넘어선 영향관계 입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영향관계는 불분명하면서 유사성이 있을 때에는 대비연구를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교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것은 대비연구 쪽이다. 韋교수가 이미 다룬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몇 가지 구상을 해보기로 한다.

이른 시기의 노래 <公無渡河歌>, <黃鳥歌>, <龜旨歌>가 4행인 것은 <<詩經>>의 4행을 차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4행은 한국 민요의 기본형식이어서 향가에도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중국문학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행시는 세계 어디서도 널리 보이는 보편적인 형식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 이른 시기 한·중 시가 단순한 형태의 4행에서 시작해 한층 복잡한 형식을 각기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간 과정을 대비해 고찰하는 연구를 구상할 만하다.

<<春香傳>>을 <西廂記>를 비롯한 몇몇 중국작품과 연관시켜 고찰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표현이나 수사에서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설정의 기본구조, 당대 현실과의 관계, 판소리로

전개하는 방식 등에서 보이는 독자적인 성격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인이 <春香傳>을 특별히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을 들어 특성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 문학에 대한 상호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金素月の <招魂>은 屈原의 <招魂>을 본받은 작품이라고 한 것도 사실로 입증되기 어렵다. 작품의 원천을 찾는다면 한국 곳에서 하는 招魂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한·중 두 나라의 곳과 시에서 招魂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금의 많은 자료를 들어 고찰하는 것이 힘들여 시도할 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제2권의 《抗倭演義(壬辰錄)研究》(1998)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업적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전작 연구서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면서 ‘中朝友誼’를 이룩한 데 커다란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해 설득력을 갖추었다. 일본의 침략이 20세기에 재현되어 南京虐殺의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이른 사태를 南京人인 韋교수가 어려서 현장에서 겪고, 항일투쟁을 한국인과 함께 벌일 것을 결심한 것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라고 서두에서 밝혔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싸운 전쟁을 다룬 작품 《壬辰錄》은 韋교수가 희망하는 연구를 하기 가장 적합한 자료이므로, 오랫동안 힘들여 연구할 만했다. 그러나 ‘中朝友誼’를 밝혀낸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소설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 인용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중국의 원병 파견에 대해서 감사하는 발언이 다른 문헌에는 많은 것과 소설은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중국관이 달랐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화나 소설에서는 明將 李如松이 조선에는 인제가 나지 못하게 하려고 산에 혈을 지르다가 쫓겨 갔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관을 다룬 것보다 작품 자체에 관한 고찰이 더 큰 성과이다. 《壬辰錄》을 《抗倭演義》라고 한 것은 중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다. 작품의 주제는 ‘抗倭’이고 수법은 ‘演義’이다. 그 양면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다각도로 한 결과가 큰 책이 되었다. 국내에

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기존업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용한 이 본도 그리 많지 않으나, 광범위한 사항을 취급했다.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구석구석까지 미쳐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하려고 했다.

전쟁이 일어날 시기의 국내외 정세, 전쟁의 경과와 특징, 전쟁을 다룬 문학의 전반적 양상을 먼저 다룬 다음 작품의 내용과 수법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했다. 인물의 형상을 다룬 내용이 그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정규군 장수, 의병, 승려, 기녀로 나누어, 李舜臣, 郭再祐, 四溟堂, 桂月香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했다. 연구서와 병행해서, 《壬辰錄》 국문본 일종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한문본 일종을 정리해 출판했다.

제3권과 제4권에 개별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문학 자체에 관한 것과 비교문학에 관한 것이 비슷한 비중을 가져 관심의 방향을 말해준다.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한국문학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바로잡은 것들이 소중한 구실을 했다. 제4권의 <‘南征記’非中國小說> 같은 것이 중국인의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런가 하면, 국내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참고해야 할 본격적인 논문도 적지 않다.

제4권에 실려 있는 한국문학 자체에 관한 논문을 먼저 보자. 그 가운데 <高麗時期偉大詩人李奎報>는 거작이다. 작품을 살살이 뒤져 “愛祖國, 愛人民, 高度具有民族自尊心”의 사상을 설득력 있게 찾아내 잘 정리했다. <尤庵祭文의‘情’中之‘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논문이며, 성리학의 이론이 생활감정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핀 소중한 의의가 있다.

제3권에 수록한 한·중비교문학에 관한 논문 가운데 <‘玉樓夢’中的音樂要素和中國傳統的音樂觀>은 韋교수가 깊은 애착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온 작품에서 다른 연구자는 주목하지 못한 면모를 찾아내 깊이 있게 다룬 역작이다. <韓中兩國各自的‘楊門女將’>은 영향비교와 대비연구를 함께 구체화시킨 논문의 좋은 예이다. <韓國現代詩人雲丁金春東與中國文學>에서는 국내학계에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시인을 들어 중국문학과의 관련을 살피는 새로운 작업을 했다.

제3권의 <孤雲先生居唐宦途時期足跡考述>, <崔致遠在中國> 등의 일

련의 논문에서 최치원의 행적과 활동을 자세하게 추적한 것은 소중한 업적이다. 최치원의 생애를 연극으로 보여준 창작품 <新編京劇 崔致遠傳奇>도 제6권에 있어 최치원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기여했다. 중국에 가서 크게 활동하다가 귀국한 최초의 한국인이 중국인 가운데 한국 연구를 가장 많이 한 韋교수와 만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위에서 이미 든 《壬辰錄》 외에 《謝氏南征記》, 《九雲夢》, 《玉樓夢》의 한문본 원문을 정리하고 주해까지 갖추어 간행해 중국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것도 크게 치하해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한국어 강의 자료를 만들고 하는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다. 미비한 조건을 무릅쓰고 혼자서 엄청난 일을 한 거인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韋교수가 이룬 업적이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계속 읽혀 큰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韋교수의 작업을 이어 발전시키는 후진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제 한·중 문화교류가 전례 없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질이 양을 따르지 못하고, 열의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지 않은지 염려된다. 韋교수가 이룬 바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한국학도가 많이 생기고, 한국에 와서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이 중국을 연구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인이 한국을 연구하는 데도 대등한 열의를 가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크게 축하할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한국학과는 일상회화를 가르치는 데 몰두하고,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은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韋교수를 본받아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